

광주FC 돌풍, 여자축구에도 분다

2023 K리그 원컵 14~15일 개최
프로구단이 선수 선발해 팀 구성
6인제 미니축구 25개 팀 참가
광주FC 대표로 FC피닉스 출격



14~15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리는 2023 K리그 원컵에 광주FC를 대표해 FC피닉스가 출격한다. 사진은 지난 8일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선수단. <광주FC 제공>

광주FC 바람이 여자 축구에도 이어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2023 K리그 원컵(K-WIN CUP·이하 K리그 원컵)'이 14일부터 15일까지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K리그 원컵은 여자 아마추어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연맹이 마련한 대회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여자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로 치러졌던 K리그 원컵은 지난해부터 K리그 구단이 직접 선수를 선발하고 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성인 여자 풋살대회로 개편됐다.

지난해 12개 팀이 참가했던 대회는 올해 K리그 전 구단이 참여하면서 25개팀 규모로 확대됐다. 경기 방식도 풋살에서 6인제 미니축구로 변경하는 등 아마추어 선수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FC를 대표해 'FC피닉스'가 출격한다.

FC피닉스는 지난 8일 강원FC와의 K리그1 33라운드 홈경기에서 출정식을 갖고 출사표를 던졌다. '불사조' 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회에 나서는 선수들은 광주가 만든 돌풍을 '우만파워'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지난 8일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12명의 FC피닉스 팀원들은 교직원, 광주 U-12 학부모와 광주시 체육회 직원 등으로 연령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다.

축구가 좋아서 도전을 시작한 이들은 한 달이 넘는 기간 꾸준한 훈련과 자기 관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타 지역 여자축구팀과의 꾸준한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등 대회를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FC피닉스의 지도를 맡은 광주 U-12 임준형 감독은 "축구의 재미는 물론, 실력까지 끌어올려야 하기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집중력과 의지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경기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나도 즐기면서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지도자로서 많은 걸 깨우치게 했다. 좋

은 성적도 좋지만 대회를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14일 개막식 후 총 5개 팀씩 5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리그가 진행된다.

6인제 미니축구로 전후반 구분 없이 15분 동안 경기가 치러지면 교체 횟수는 제한 없다. 경기 끝난 뒤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5일에는 순위별 토너먼트가 진행되고, 1위 토너먼트 결승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컵을 차지한다. 그 외 모든 순위별 토너먼트에서 승자전과 패자

전을 진행해 전체 참가 팀이 끝까지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지며 올해 페어플레이상이 새로 추가된다. 개인상 부문에서도 득점왕 외에 그룹별 MVP가 신설됐다.

한편 올해 대회는 블레이크크리에이티브, 제천시, 링티, 동원샘물이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지원해 치러진다. 연맹은 여자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참가팀에게 훈련 지원금과 이동, 숙박 등을 제공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공격수 허율 9월의 영플레이어 선정

광주 장신 공격수 허율(사진)이 9월 영플레이어가 됐다. 허율이 K리그 9월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개인 첫 번째 수상이다.



허율은 9월 한 달간 3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허율은 9월 17일 열린 30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면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허율은 32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도 엄지성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팀의 2-1 승리를 도왔다.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은 지난 2021년 신설된 상으로, 매달 K리그1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돌아간다.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0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1시즌 이후 데뷔)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 출장한 선수가 후보가 된다.

9월 영플레이어상은 29~32라운드까지 총 4경기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건을 충족한 선수는 허율, 엄지성(광주), 류광현(강원), 이태석(서울) 등 모두 6명이었다.

이 가운데 허율이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수상자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현종의 호투

키움전 8이닝 무실점 호투...9시즌 연속 160이닝 KBO 첫 기록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의 '위키'를 잊게 한 빛나는 호투가 나왔다. 주인공은 '베테랑'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은 지난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6차전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양현종은 이날 등판을 통해 9시즌 연속 160이닝이라는 KBO리그 첫 기록도 달성했다.

1회 1사에서 도승에게 경기 첫 안타는 내줬지만 이주형의 공을 직접 잡아 병살타를 만든 양현종은 2회는 깔끔한 삼자범퇴로 막았다. 그리고 2회말 상대의 실책 연발 속 KIA가 대거 6점을 뽑아내는 등 확실한 득점 지원까지 받으면서 7회까지 순항을 이어갔다.

11-0으로 앞선 8회 양현종에게 막판 위기는 있었다. 양현종은 1사에서 3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김해성을 초구에 3루수 파울 플레이로 처리했고, 예진원을 2루 땅볼로 잡고 실점 없이 8회를 마무리했다.

8회까지 투구수는 97개. 완봉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9회 김승현이 마운드에 오르면서 양현종은 8이닝 무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양현종은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했다.

양현종은 "(완봉) 기회가 이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도 내보려고 했지만 코치님이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이나, 볼 갯수를 조절해주셨다. 오늘 경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나날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프로에 있으면서 많은 게임을 했다. 마지막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8회만 던지고 내려온 것도 마지막 게임을 위해서였다.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게임 한 게임을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있다.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이겨야만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다"고 17일 예정된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최종전을 이야기했다.

살날같은 희망이지만 아직 '가을잔치'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만큼 양현종은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도 "시즌 마지막 경기였다면 끝까지 던지게 했을 것인데 로테이션상 한 번 남아있어서 대비해야 할 것 같았다"며 "본인이 욕심내면 마지막 이닝까지 하려고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까지 가는 승부가 펼쳐지면서 양현종이 책임질 2023시즌 최종전은 팀의 운명을 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팀에게도 중요한 경기, 양현종 개인에게도 오르고 싶은 고지가 있다.

170이닝이 양현종이 바라보고 있는 시즌 마지막 목표다. '9시즌 연속 10승'이라는 꿈은 무산됐다. 11일 키움전에서 8승에 성공했지만 양현종에게 이제 1경기만 남아있다.

대신 9시즌 연속 170이닝이 양현종을 기다리고 있다. 양현종은 11일 8이닝을 더하면서 올 시즌 28경기에서 164이닝을 채웠다.

마지막 등판에서 6회를 책임져주면 9시즌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이 만들어진다.

양현종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닝'을 이야기했다. 이어 "내세울 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던지는 것이다. 내 스스로의 약속이고, 시즌 시작할 때마다 목표 수치를 잡아왔다. 내가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만년 꼴찌 페퍼스, '박정아 효과' 볼까

프로여자배구 미디어데이 열려
박정아 "재밌는 배구 보여주겠다"
트린지 감독 "나날이 좋은 날 선사"

만년 꼴찌 AI페퍼스가 '박정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가 프로배구 2023-2024 정규리그 개막(14일)을 앞두고 12일 열린 미디어데이에 행사에서 올 시즌 '봄 배구 진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신생 구단인 AI페퍼스는 지난 두 시즌에서 7개 구단 가운데 연달아 7위에 머물렀지만, 자유계약(FA) 시장에서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박정아(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채선아(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지난 시즌 한국도로공사 우승의 주역인 박정아의 영입은 상대 팀들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챔프전 유력 후보'를 묻자 흥규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정관장 등 다수 팀이 페퍼스축은행을 꼽았다.

박정아는 "저희 팀에 새로운 선수가 많고 어린 선수도 많아서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구하는 '재밌는 배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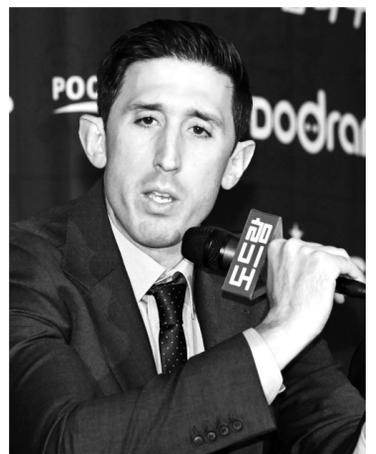
올해 6월 부임한 뒤 석 달이 지난 조 트린지(36·미국) 감독은 정규리그 첫 시험대에 선다.

트린지 감독은 정규리그 출사표를 핵심어로 '나날이 좋은 날'(Better Every Day)을 제시했다.

2021 북동미선수권 미국 여자배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그는 이번 시즌에 대해 "처음과 마지막 경기를 비교해 매일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12일 열린 2023-2024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 각오를 밝히고 있는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AI페퍼스 박정아(왼쪽)와 조 트린지 감독. <한국배구연맹 제공>



12일 열린 2023-2024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 각오를 밝히고 있는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AI페퍼스 박정아(왼쪽)와 조 트린지 감독. <한국배구연맹 제공>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격과 수비, 블로킹 등 전반적인 체계에 많은 변화를 줬다"며 "하나의 블로킹을 잡기 위해 센터 미들블로커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훈련 과정을 소개했다.

AI페퍼스는 오는 15일 오후 수원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 옷을 입은 외국인 선수 야스민 베르타르가(미국)가 친정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둔다. 196cm의 거포 야스민은 지난 시즌 허리를 다친 뒤 페퍼스의 지명으로 유니폼을 바꿔입게 됐다.

야스민은 "완전히 생각될 정도로 회복을 한 상태"라며 "시즌 기간이 길어서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모두 있겠지만 자신 있게 경기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시즌부터 V리그는 기존 팀당 1명씩인 외국인 선수 외에 아시아 지역에서 1명씩 더 데려오는 아시아쿼터제(할당제)를 실시한다.

미국과 필리핀 혼혈인 미들블로커 엄제가 필리핀은 미국 대학 졸업 후 필리핀리그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페퍼스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정규리그에서 36개 경기를 치르며 7개월 대장정을 떠나는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광주페퍼스 타디움(임주종합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첫 홈 개막전을 치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30일
2관	더 난 2
3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4관	화란
5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6관	30일,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9관	화란, 만강홍: 사라진 밀서, 80일간의 세계일주
7관 씨네마	만강홍: 사라진 밀서, 크리에이터
8관 씨네마	1947 보스톤, 극장판 영웅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최강의 대결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